

코로나19에 수출길 막혀 기아차 광주공장 멈추나

2공장 일주일 가동중단 협의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도
12일부터 휴무에 돌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광주의 주요 산업인 자동차산업에 먹구름이 드리우면서 기아차 광주공장이 또 다시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기아차 주요 수출국인 미국과 유럽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현지 판매가 사실상 마비돼 수출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금호타이어도 공장가동을 멈추는 등 지역 내 협력업체들도 '별뿔'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기아차나 친척된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13일 기아차 광주공장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현지 판매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주문이 감소하는 등 수출선에 급제동이 걸렸다.

현재 기아차는 노조 측과 생산라인 휴업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휴업 여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휴업이 결정될 경우 광주2공장을 비롯해 경기 광명 소하1·2공장이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가동을 중단하게 된다. 주말을 제외한 5일간 휴업에 들어가는 것이다.

스포츠티와 싸울 등 미국과 유럽 수출용 차종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광주2공장은 기아차 광주공장의 하루 전체 생산량(2000여대)의 절반 수준(45%)인 약 900여대를 생산하고 있다. 5일 동안 휴업하면 약 4500여대의 감소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품을 납품하는 지역 협력업체 역시 이에 따른 여파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월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와이어링 하네스' (wiring harness·배선 장치) 부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져 군수라인을 제외한 1·2·3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다. 당시 '셧다운'으로 수출물량이 줄면서 같은 달 광주의 자동차수출은 전년 대비 8.2% 감소했고, 영세한 협력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곤장 지역경제에 영향을 끼쳤다. 기아차 광주공장 가동 중단에 지역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특히 국내 자동차업체의 판매 부진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도 휴업에 돌입하면서 지역 제조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 평택공장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1차 휴무에 들어갔고,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2차 휴무에 들어간다. 이달 30일부터 5월 초까지 휴업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현재 노사가 협의 중이다.

이에 앞서 금호타이어도 지난 2월 8~9일 국내 3개 공장이 휴업을 진행했고, 생산 규모도 10% 감소해 유지하는 등 코로나19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오랫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다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금호타이어 입장에서는 뼈아픈 약재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광주의 경제·산업계를 대표하는 기아차 광주공장과 금호타이어의 잇단 휴업과 위기에 제조업계를 비롯한 지역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주의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지난 2월 가동중단에 이어 또 다시 휴업에 들어가면 영세 업체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기존 대내외 경기 악재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심각한 경영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애플 문화중심 도시 투자진흥 지구 확대

CGI 센터 권역·문화전당 권역·KDB생명 빌딩 등 3곳
문화관광산업 등 5억이상 투자하면 법인세 5년간 감면

광주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투자진흥 지구가 대폭 확대됐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CGI(Computer Generated Image) 센터 권역,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권역 투자진흥 지구를 확대 지정, 공고했다.

투자진흥 지구는 CGI 센터 권역,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권역, KDB생명 빌딩 등 3곳이다. 지난 2010년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투자기업 유치, 세금 감면 등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정됐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 곳은 문화전당 권역의 7개, CGI 권역의 2개 규모다. 시는 특히 남구 송하동 CGI 권역에서 2021년 개관 예정인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GCC)가 미리 투자진흥 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아시아 최대의 4D, UHD, AR, 홀로그래프 등 콘텐츠 제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에서는 영상복합문화관, 콘텐츠 창업 보육 센터, 음악산업 진흥 센터, 미디어 아트 창의 도시 플랫폼, 서남동 인쇄의 거리, 양립동, 사직동, 동명동 등이 추가 지정됐다. 시는 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산업 분야 기업 유치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이들 투자진흥 지구에서는 문화·관광산업 5억원, 청소년 수련 시설 등 3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법인세, 소득세 등을 5년간 감면받는다. 또 15년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입지, 이전, 설비 투자, 고용, 교육 훈련 보조금 등 관련 혜택도 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이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과 전일빌딩 내 기업종합지원센터(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개소를 통해 유망한 기업 유치 및 입주 기업 지원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국 유일의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를 활성화시켜 일자리가 창출되는 문화중심도시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최진석의 새 말 새 몸짓 ▶9면



굿모닝 예향 - 담양 ▶18·19면

양현종·임기영 지략대결 무승부 ▶20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여야, 막판 부동산 잡기 총력



“꼭 투표하세요” 21대 국회의원선거를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주 광산구 선암동 황룡천수공원 유채밭에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총선 D-1

4·15 총선을 하루 앞두고 여·야 각 당과 후보들은 선거운동 마지막날까지 광주·전남지역 부동산 잡기에 총력을 기울였다. 아직까지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지 못한 부동산을 어느 진영이 끌어안는지 여부가 선거 막판 가장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4·5면】

광주·전남지역 각 후보들은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높은 투표율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막판 표심잡기와 함께 막바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13일 광주·전남지역 대다수 후보는 출퇴근 인사를 제외한 외부 일정을 최소화하고 조직을 총 가동해 휴대전화 등을 통

광주·전남 후보들 높은 사전투표 서로 유리하다 판단
민주당·민생당 조직 총동원 지지층 투표 참여 독려
부동산 선거구별 10~20% 예측 ... 중요 변수로 떠올라

해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이용빈 후보는 송정오일장 유세와 송정동 사랑방원 사거리에서 출퇴근 인사를 했고, 광산을 민행배 후보도 퇴근 인사를 하며 지지를 당부하는 등 대부분 후보가 외부 일정을 줄였다.

이들 후보는 대신, 지지층과 지인 등을 동원해 '숨어 있는 표' 찾기에 몰두했다. 민생당과 정의당 등 야당도 조직을 총동원해 막바지 지지세 결합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결과 광주는 32.18%, 전남

은 35.77%의 전국 최고치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여야 각 당의 막판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민주당은 정부에 대한 지지세가 높은 사전투표율로 이어졌으면서 이를 통해 광주·전남 18개 선거구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반면 민생당은 수년 동안 쌓인 현역 국회의원들의 조직력이 이 지역의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렸다고 판단하고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나오면서 여야 각 당이 총선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

다. 광주지역 민주당 한 후보는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세가 결합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부동산을 끌어안는다면 광주·전남 18석 승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높인다고 볼 수는 없어 집중해서 투표 참여와 지지를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생당도 일부 선거구에서 사전투표를 통해 민생당 조직이 결합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선거구별 10~20%가량으로 예측되는 부동산을 겨냥하기 위해 조직을 총가동하고 있다.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 정당은 투표율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많았다고 보고 높은 투표율이 불리하지만은 않다고 보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입전형 일정 확정

수시 9월 23일부터 접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된 2021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일정을 13일 확정 공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초·중·고 온라인 개학을 발표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 마감일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모두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교협에 따르면 올해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으나 12월 3일로 2주 미뤄졌다. 수능 성적 통지일은 12월 23일로 확정됐다. 수시모집 학생부 작성 기준일은 매년 8월 31일인데 올해는 9월 16일로 미뤄졌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28일, 수시 합격자 발표는 12월 27일까지로 변경됐다.

정시 학생부 작성 기준일도 원래 11월 30일이지만 올해는 12월 14일로 바뀌었다. 정시 원서 접수 기간은 내년 1월 7~11일이고, 정시 합격자 발표는 2월 7일까지 이뤄진다.

대교협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adiga.kr)에 바뀐 일정을 공지할 예정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지원할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일정 변경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노무현 전)대통령의 정신계승 3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국정농단의 노승일
저격수
4·15우리들의 정치가 시작됩니다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후보
비야동, 첨단1동, 첨단2동, 신창동, 신가동, 수원동, 현남동 일원동
후원계좌 : 국민은행 793301-01-818356
(예금주 : 광산구를 선거구 국회의원에비추천자 노승일님)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혜택으로 전액 돌려받을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광산구를 선거구 국회의원에비추천자 노승일후원회
광주광역시 첨단 중앙로 136 센트럴빌딩 2층 206호